

■ 2025년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 2025년 4월 9일(수요일) 14:00~16:00
 - 2차 인터뷰심의 : 2025년 4월 16일(수요일) 14:00~16: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기홍, 김보라, 김영석, 김허경, 염혜원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사업은 예술단체들의 국제 예술교류 역량 강화와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주체들이 국제적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바운드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소멸'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 담론 형성과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 확산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인구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화·예술을 매개로 실험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본 사업의 지향점입니다. 특히 '2024년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선정 지역에 대한 후속 연계 지원으로 국내 예술단체들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강원 고성·태백, 경북 울릉·영주, 인천 강화, 전남 강진)을 대상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총 10건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행정 결격 4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서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였고, 3건에 대한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의는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와 심의 과정 숙지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심의위원들의 신청 사업 전체에 대한 사전 채점 및 전수 검토 의견 작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 이해도(3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기대효과(40%)의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채점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서류심의에서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1차 서류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과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맞춰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국내외 협력 단체와 긴밀한 유대가 있으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협력 단체의 참여가 사업 내용과 짜임새 있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 대비 본 사업의 심의 기준 중 기대효과가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만큼 향후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 단체와의 연계성 및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협력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공고한지 혹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고,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10분 프리젠테이션과 20분 사업참여자와 심의위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 기준을 토대로 제출된 자료 검토, 질의응답 및 심의위원 간 심층 토론을 통해 최종 1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국내외 협력 단체들과 네트워킹 면에서 탄탄하거나, 예술인들 간의 관계 인구 만들기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소속 의식을 갖도록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업,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사업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지역활성화와 예술가 및 주민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강조한 부분은 지역, 예술가, 주민, 협력 단체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대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또한, 다년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지, 국내외 협력 단체와의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 사업이 하나의 행사로 인식되지는 않는지,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거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인터뷰 심의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장시간 논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국제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이니만큼 처음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및 현지 조사와 연구, 그리고 참여자 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명 : 김 기 흥 (서명)
김 보 라 (서명)
김 영 석 (서명)
김 허 경 (서명)
엄 혜 원 (서명)